



세월호 피해자 돕기
김연아도 1억 기부
2면



손흥민 4호 어시스트
완치 박주영 훈련돌입
8면

9위 LG, 5점대 방어율로는 답이 없다

투수들 컨디션 작년과 땀땀...캠프기간 준비 부족?



지난해 정규시즌 2위팀 LG가 수상하다. 16경기에서 ‘-7’(4승11패1무)을 기록하며 1위와 게임차가 6.5로 벌어졌다. 불안한 투수조, 강팀과의 경기일정 등이 LG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스포츠동아DB

팀 방어율 최하위...16경기 중 선발승은 단 2승뿐
작년 좋은 성적에도 코칭스태프 대거 물갈이한 탓도
승률 5할 기준으로 -10까지 밀려나면 만회 어려워



“이제야 겨우 플러스 3이 됐다.”, “아직 멀었다. 아직도 마이너스 2다.”

시즌 중 각 팀 감독들이 취재진과 편안한 자리에서 하는 말이다. 많은 감독들이 장기 레이스를 운용하면서 승률 5할을 기준에 맞춘다. 승패 차이에서 플러스가 많아질수록 팀 전체에 웃음이 많아지고, 마이너스가 늘어날수록 시름이 깊어진다. 16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7’(4승11패1무), 지난해 페넌트레이스 2위를 기록하며 11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한 LG의 올 시즌 성적표(21일 현재)다.

1위와는 벌써 6.5게임차다. LG의 초반 부진은 심상치 않다. 무엇보다 마운드의 부진이 걱정스럽다. LG는 지난해에도 ‘-6’까지 떨어진 적이 있지만 당시 팀방어율은 3점대였다. 마운드가 안정적이면 언젠가는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LG는 팀방어율이 5점대(5.27)로 최하위다. 세부 기록인 피안타율(0.286), 피출루율(0.371), 피장타율(0.420) 모두 7~9위다. 16경기를 치르면서 선발승은 단 2승뿐이다. 그것도 신인 임지섭과 새 외국인투수 티포트가 거둔

●16경기를 치른 2013년 LG와 2014년 LG

	성적	팀방어율	선발방어율	불펜방어율	팀 타율	팀 득점
2013년	10승6패 (승률 0.625)	4.25	4.15	4.40	0.291	94점
2014년	4승11패1무 (승률 0.267)	5.27	4.95	5.67	0.287	88점

승리다.

시즌 초반이라고 하지만 ‘-10’까지 밀려나면 매우 위험하다. 현장에서는 대개 3게임차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 달이 필요하다고 한다. 전반기 종료 때 4위와 4~5게임차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포스트시즌은 힘들다는 것은 최근 공식 과도 같다.

LG는 지난해 말 1·2군 코칭스태프를 대거 물갈이했다. 특히 팀 성적이 좋았음에도 핵심인 투수코치와 타격코치를 모두 바꿔 주변의 걱정을 사기도 했다. 코치의 지도방식이 다르면 선수들은 민감하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명을 요구한 해설위원은 “투수들의 컨디션이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르다. 캠프기간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 한 눈에 보인다. 몸을 다 만들지 못했다. 시즌 초반에 당연히 부진할 수밖에 없다. LG는 기본적으로 타격이 좋은 팀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5점대 팀방어율(5.27)이 이어진다면 -10까지 금방 떨어진다. 여름 이전에 4강권에서 멀어 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스포츠동아 이효봉 해설위원도 “-10까지 밀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이 위원은 “팀이나 선수나 2~3년 꾸준한 성적을 내야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LG는 팀방어율 1위(3.72)를 기록했다. 류제국(12승2패), 신정락(9승5패) 우규민(10승8패)이 선발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2~3년 혹은 3~4년 꾸준히 성적을 올린 투수들은 아니다. 그 부분이 불안요소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타 팀 코칭스태프 한 명은 “투수 파트에서 류제국, 우규민을 당연히 10승 이상 해 줄 수 있는 투수라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구상한 것 같다. 상대 팀은 얼마나 전력분석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겠나”라고 꼬집었다. 류제국과 우규민은 4차례 선발등판에서 아직 승리를 올리지 못했다. 신정락은 3경기에 나섰지만 모두 구원등판이었다.

이 위원은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시즌 초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빨리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점을 찾으면 아직 남아있는 시즌은 길다”고 말했다.

LG는 이번 주 전력을 재정비하고 있는 삼성과 만난 뒤 주말엔 4일 휴식 후 1~3선발이 출격하는 KIA와 대결한다. 산 넘어 산이다. LG가 이 고비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지 지켜볼 일이다. 여기서도 넘어지면 시즌 초반 부진을 복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프로야구 관련기사 2·3·4·6·11면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rushhkh



성남 FC·박종환 감독 폭행당한 선수들 회유

‘꿀밤’으로 축소...화해도 사실과 달라

박종환(76·사진) 성남FC 감독과 구단이 폭행당한 선수들을 회유하고 사건의 축소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성남 구단은 21일로 예정됐던 박 감독에 대한 자체 징계의 발표를 미뤄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성남 구단 사정에 밝은 축구계 인사에 따르면, 사건 직후 일부 코칭스태프가 ‘꿀밤’을 맞은 정도라면 얘기하리라’며 해당 선수들을 포함한 선수단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또 ‘박 감독과 해당 선수들이 화해했다’는 구단의 발표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성남 구단의 한 관계자는 스포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침묵했다. 박 감독은 16일 성균관대와 연습경기 도중 소속 선수 2명의 얼굴에 손찌검을 해 거센 비난을 자초했다.

성남 구단은 폭행사건이 공개된 17일 이후 단장과 각 팀장이 참석한 자체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 골몰해왔다. 박 감독이 19일 부산 아이파크주경기장에서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의 K리그 클래식(1부리그) 9라운드 원정경기 때 벤치에 앉지 못한 것도 구단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21일 성남 구단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 조치를 내리려 하고 있다. 상당한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여러 상황 때문에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 구단이 21일 징계를 확정하고도 발표하지 못한 이유는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종 결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시장은 박 감독의 성남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전해져왔다.

한편 K리그 챌린지(2부리그)의 부천F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선수 구타 사건의 책임을 지고 해당 코치가 자진 사퇴했다”며 “최소한 감독에게도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물의를 빚은 A 골키퍼코치는 13일 강원FC와의 K리그 챌린지 4라운드 경기 전반전이 끝난 뒤 B선수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kimdohoney

편집 | 박재윤 기자 parkjy@donga.com 트위터@parkjyoon

**상가, 사무실, 업소용
산업용 대·중·소형**

**고성능
하이엔진
탑재**

중고보상판매!

냉난방기는 센추리입니다

에어컨이 난방까지 에너지 초절감 시스템

■ **중고제품 최고가 보상 판매 지원**
제조사, 모델, 연식 관계없이 냉난방기 설치 고객에 한하여 최고가격으로 보상 지원해 드립니다.

■ **無비용·無보증·無담보로 36개월 무료 구입 효과**

에너지 절약비용으로 분할금을 내고도 돈이 남습니다.

■ **가격이 아닌 센추리 기술입니다!**
기름이나 가스를 쓰지 않는 무연로 방식의 친환경 에너지 절약 시스템으로 난방비 절감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원터치 방식으로 냉난방이 자유로워 사용이 편리하고 가스나 유류식, 히터식에 비해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보다 깨끗한 쾌적 난방을 제공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이면
렌탈·리스·할부금융 장기분할**

10년이상 사용해야 하는 냉난방기 확인!!!

- 10년이상 신뢰할 수 있는 축적된 노-하루와 기술력이 있는 브랜드인지~
- 매일 10시간 이상의 가동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내구성을 갖고 있는지~
- 구형 방식의 중국산 저급 조립품은 아닌지~
- 겨울철 난방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지는 않은지~
- 신속 정확한 AS망이 있는지~

최고 2,800,000원 차감

국민카드	70만원 까지	신한카드	70만원 까지
(KB카드)		(LG카드)	
삼성카드	70만원 까지	외환카드	70만원 까지

**전국 무료
24시간 (토·일 포함)
상담 전화**

080-085-2345